

능력주의(Meritocracy) 문화에서의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고찰

김병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학 박사과정

논문초록

‘능력주의(Meritocracy)’는 우리의 삶과 사회의 구조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주의에 물들어 있으며 사람이 주체가 되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전제로 결과에 대한 합리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주의는 교육에 부정적 영향력을 준다. 기독교신앙은 당대를 지배하는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시대 정신의 중요한 요소인 능력주의와 능력주의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특별히 교육 영역을 들여다보고 능력주의로 인해 나타난 교육의 ‘시험문화’, ‘인지적 학습 중심’, ‘개인주의’, ‘성과주의’,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어려움’을 드러내어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능력주의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으로 ‘진로’교육과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공동체’와 ‘일’을 진로교육으로, ‘몸’과 ‘여백’을 교육과정 안에서 개괄적으로 다룬다.

핵심어 : 능력주의 Meritocracy, 몸 body, 기독교교육 Christian education, 노동 work, 진로교육 career education

I. 들어가는 말

2019년 한해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의 중심에는 조국 전(前) 법무부장관이 있었다. 더 정확히 표현하지만 그의 자녀들이 중심이었다. 정치인들이 이 상황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갔다 손 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은 꺼질 줄 몰랐다. 복잡한 정치공학적 입장을 떠나 이 상황이 자녀의 입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었다.¹⁾

대한민국에서는 자녀문제와 관련된 정치인이나 유명인은 심한 곤혹을 치르고, 나아가 인생 자체가 흔들린다. 하지만 이 현상은 비단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의 문화 때문만으로 볼 수 없다. 미국에서도 2019, 2020년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²⁾

1) 비슷한 상황이 2020년 추미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자녀의 군복무 비리 시비였다.

2) 2019년 3월, 예일, 스탠퍼드, UCLA 등 주요 명문대의 부정입학이 드러나면서 연방수사국(FBI)이 동원되어 수사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Eric Levenson and Mark Morales(Mar 13, 2019), *Wealthy parents, actresses, coaches, among those charged in massive college cheating admission scandal, federal prosecutors say*, <https://edition.cnn.com/2019/03/12/us/college-admission-cheating-scheme/index.html>. 또한 최근 유명 CEO의 자녀 부정입학

이처럼 비슷한 사건과 관심,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일이 나라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이유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인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은 공통적으로 ‘능력주의(Meritocracy)’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데 능력주의는 사회는 물론, 특별히 교육에서 그 영향을 단단하게 드러낸다. 이런 흐름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인해 더욱 강화되는 데, ‘개인의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는 더욱 그렇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러한 개인의 성과중시는 교육의 과정 전반에 있어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입시’라는 구조로 표면화된다.

사실 그동안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세속적 관점에서 간헐적으로 다뤄져 왔다. 기독교교육은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능력주의 전반 혹은 부분에 대해서 다뤄진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³⁾ 하지만 능력주의가 거대한 문화적 흐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독교교육은 이에 대해 차근차근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 연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위와 같은 문제의 근원에 ‘능력주의(Meritocracy)’가 있음을 밝히고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중심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능력주의란 무엇이란 무엇이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둘째, 능력주의는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셋째, 기독교교육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이 연구의 비판적 대상이 되는 능력주의에 대해 사회모습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능력주의 문화

1. 능력주의

영국의 사회학자였던 마이클 영(Michael D. Young, 1915-2002)은 1958년에 소설 하나를 발표한다. 이 작품 「능력주의」(*The Rise of the Meritocracy*, 1958)는 장르상 소설이었지만 사회학자였던 저자의 세밀한 사회분석을 거쳐 저술되었다. 영은 이 책에서 개인의 ‘능력(지능+노력)’이 기준이 되는 세상을 그리면서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단어를 처음 등장시킨다. 그가 묘사한 2034년의 미래 모습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서 충격을 가져다준다. 여기서는 능력주의와 능력주의 문화의 몇 가지 특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근대사회는 봉건시대의 혈통적 귀족제에 대한 저항으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열망하게 하였다. 계층간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필요했다. 모든 개인에게 혈통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기

도 밝혀졌다. Eric Levenson(Nov 17, 2020), *Maryland CEO paid former fencing coach \$1.5 million in bribes to get his sons accepted to Harvard, feds say*, <https://edition.cnn.com/2020/11/16/us/college-admissions-scam-harvard/index.html>.

3) 연구자가 “능력주의”와 “기독교”를 키워드로 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한 결과, 국내학술논문은 전무했다. 검색일 2020. 12. 3.

회를 제공하되 그 결과는 철저히 개인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 능력주의다. 요약하자면, 능력주의 문화에서 노력은 개인에게 달렸으며, 결과는 언제나 개인의 책임이고, 실패와 성공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 계층 간 불평등에 의해 정당하게 제기된 능력주의는 결과인 불평등 또한 정당화하게 된다. 능력주의 문화 안에서는 빈부격차가 늘어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자는 능력이 있기에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예전엔 토지를 통해 계급이 형성되었다면 근대 이후에는 기계를 통해, 업적을 통해 계급을 부여받는 것이다(Young, 유강은 역, 2020: 15).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통해서도 불평등이 해소될 수 없다. 능력주의는 계층 간 이동의 가능성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영 또한 이런 지점을 간파했다. 영은 자신의 저술 이유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혁명이란 없으며, 과거를 변형하면서도 재상산하는 중단 없는 변화가 서서히 누적될 뿐이라는 믿음이다.....중략.....재능 있는 이들은 자기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그런 변화에 따라 하층 계급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몫이 됐다(Young, 유강은 역, 2020: 27-29).

2. 능력주의가 사회에 끼친 영향

영이 말한 바와 같이 능력주의 문화 안에서 실패의 원인은 실패한 개인 자신의 몫이다. 마이클 샌델은 ‘실패한 개인 자신의 몫’을 ‘모욕’, ‘모멸’, ‘업신여김’이라고 표현한다.

능력주의에 따르면.....중략.....실패는 바로 당신의 잘못이 된다. 사회의 상층부에 속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잘못에 따른 것이기에 자괴감을 갖게 된다. 그들이 성공한 자들로부터 받는 모욕은 정당한 것인 반면 자신은 모멸을 당해 마땅한 존재가 된다. 그런데 정말로 학위가 없고 성공하지 못한 자는 업신여김을 받아 마땅한가?(Sandel, 함규진 역, 2020: 13).⁴⁾

상층계급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고 느끼는 모멸감을 능력주의가 주장하는 노력으로 대체하려 한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하다보면 능력주의 문화가 제시하는 성공을 맞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사람들을 끊임없는 경쟁으로 몰아붙인다. 노력하여 자신의 능력이 상승한다면 이에 따라 부여받은 등급이 달라질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등급에 따라 보상한다는 능력주의와 서로 상승효과를 이룬다. 현대 사회에서 ‘보상=돈’이라는 수식이

4) 샌델에 따르면, 하층계급이 느끼는 모멸, 실패가 엘리트층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이를 잘 이용하였다. 트럼프는 “불만과 증오”를 정치 도구로 삼았고 그의 전력은 통했다. 샌델은 이를 “노동계급의 마음의 상처로 빚어진 현상”으로 본다.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함규진 역 (서울: ㈜미래엔, 2020), 309-310.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데, 성과주의다.

시장경제는 생산성을 그 토대로 한다. 고로 사회 또한 무의식적으로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한병철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성과주의 사회이며 이는 “할 수 있음”의 사회다(Byung-Chul, 김태환 역, 2014: 25). 그래서 과거 규율사회가 부정성의 사회였던 것과 달리 현대의 성과주의 사회는 ‘할 수 있음’의 과잉긍정의 사회다. 이는 앞서 살펴본 능력주의의 이상(理想)과 상통한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그래서 능력주의 문화의 슬로건이다.

성과주의는 과거 규율적이고 의무적인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긍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과 의무같은 ‘부정성’에서의 과도한 탈출은 주변 사람들 즉, 타자로부터의 자유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과잉긍정과 같이 과잉자유 또한 타자에게서의 자유에서 멈추지 않고 “나르시시즘적 자기 관계”로 나타난다. 이것은 “아예 타자의 차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이 과잉자기관계다(Byung-Chul, 김태환 역, 2014, 86). 흥미로운 건 이와 같은 개인중심적 관점이 또 다시 능력주의의 개인책임과 맞물린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능력주의, 시장경제, 성과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능력주의의 특징은 ‘노동’과의 관계다. 사실 능력주의와 ‘노동’은 두 가지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능력주의가 교육을 이용하여 사람을 선별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교육과 연관이 있기에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고학력자들에게 보상을 많이 하는 능력주의 문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발표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을 봐도 알 수 있다.⁵⁾ 여러 가지 변수를 조합한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지만 학력(고졸, 전문대졸, 대졸)에 따른 임금 격차는 확연하다. 사업체 규모 기준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큰 경우, 고졸이 대졸 임금의 59%밖에 되지 않았다(고용노동부, 2020: .569). 학력에 따른 소득불평등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의 남성 노동자들을 조사했던 데이비드 오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학을 졸업한 미국의 상근직 남성의 실질적인 시간당 수입은 어디에서나 20-56% 증가했고.....중략.....고등학교나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남성들의 실질 수입은 상당히 하락했는데, 고등학교 중퇴자의 경우 22%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자들 사이에서는 11%가 떨어졌다(Putnam, 정태석 역, 2016: 58).

능력주의와 노동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 연관성도 있다. 연구자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능력주의는 시장경제, 성과주의와 상호 강화를 할 정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기에 시장경제와 성과주의가 불러일으킨 노동의 가치 하락 또한 능력주의가 그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5) 이 자료는 2017-2019년까지 3년간의 임금통계를 2020년 6월 기준 임금수준으로 변환한 결과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웹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age.go.kr/newbbs012/newbbs012list.jsp#> (검색일 2021. 3. 3)

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는 양산형 차종인 ‘Ford Model T’를 대량생산하기 위해 1913년, 공장 내에 “어셈블리 라인(Assembly line)”을 설치한다. 이 어셈블리 라인은 생산성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Ford Model T’가 생산되는 시간이 10배 이상 단축되었으니 그 ‘효율성’은 말할 게 없다.

문제는 어셈블리 라인으로 인해 노동자가 수행하는 노동이 추상적이 됐다는 것이었다. 좀 더 설명하자면, 그동안 육체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물건의 처음과 끝을 통제했다. 전체 그림 속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알았으며 모든 노동작업은 노동자 자신의 주체성에 의해 이뤄졌다. 즉, 모든 작업은 극히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어셈블리 라인은 그렇지 않았다.

분산된 기술지식은 먼저 사업주에 의해 수집되고 다시 작업공정의 일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지침의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배분된다. 그런 공정은 과거 공예의 전통과 경험에 기반을 둔, 최종산물에 대한 노동자의 심리적 이미지와 의도에 의해 활성화되는 통합적 행위를 대체한다. 따라서 테일러의 견해에 의하면 모든 가능한 정신노동은 작업장에서 배제되고 대신 계획이나 배치 부서에 집중되어야 한다(Crawford, 윤영호 역, 2018: 57).

이렇게 어셈블리 라인은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사고, 장인(匠人)의 복잡한 인지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도식 즉, 육체노동의 물리적 수행과 인지적 측면을 분리하는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Crawford, 윤영호 역, 2018: 46). 촘스키(Noam Chomsky)에 따르면 장인적 노동에서 작업공정의 일부만을 수행하게 된 노동자들은 자신의 상품을 파는 게 아닌, 노동 자체를 팔게 되었다. 이들은 일과 인간의 존엄을 잃고 “임금 노예”가 되었다(Chomsky, 구미화 역, 2017: 146-147).

지금까지 살펴본 바, 능력주의는 기존의 혈통적 귀족에 의한 계급을 뛰어넘지 못했다. 실패의 책임은 개인에게 주어졌다. 시장경제의 생산성 중시는 능력주의를 통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생산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개념을 바꾸어놓았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도식에 의해 ‘육체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여기에 가장 큰 구조로 작용한 것은 ‘학력’이다. 그동안 능력주의는 ‘교육’을 충실한 도구로 삼았다. 다음 장에서는 교육이 능력주의에 의해 어떻게 도구화되었는지, 능력주의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겠다.

III. 능력주의 문화 속의 교육

1. 시험문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의 개념은 고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려의 광종(925-975)은 문벌귀족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는 데,

바로 과거시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혈통과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을 보고 발탁하겠다는 인식은 당시 개혁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후로 과거시험은 조선을 관통하며 양반들의 삶에 필수적인 수험기간을, 합격을 기원하는 수험문화를 만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의 내신제도와 같은 ‘성균관 우등생 우대’ 제도도 있었으며, 직무 수행 중인 관료에게도 승진시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이경숙, 2018: 25-36).

사실 한국은 유교(儒敎)의 ‘입신양명(立身揚名)’으로 능력주의의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입신양명은 유교의 최초 경전인 효경(孝經)에서 유래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부모에 대한 효를 담고 있다. 다만 원래는 부모를 높이는 효도의 의미로 입신양명을 추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세주의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유교의 입신양명 가치도 시험이라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 그 영향력을 떨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시험은 유교라는 거대한 사상을 양반 및 지도자들에게 주입하는 효과적인 도구였다. 근현대의 대학입학 연합고사(1954년), 국가고사(1962년), 예비고사(1969년), 학력고사(1982년), 수학능력시험(1994-현재)은 이런 한국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로 능력주의에 있어서 시험은 거대한 힘의 공급처 및 도구다. 시험은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분류, 선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력은 계층 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받아들여지고, 불평등 해소의 방법으로 대학입시에 집중하는 일이 벌어진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대학입시는 불평등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Scholastic Achievement Test)의 탄생배경도 이와 비슷하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총장이었던)코넛트는 이 제도를 도입하여 천부적 지능만 테스트할 것이고 교과 성적을 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유수의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그가 장학생을 뽑기 위해 마련한 테스트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미 육군이 시행한 IQ테스트와 비슷했는데, 수학능력 평가시험SAT이라는 명칭을 얻었다(Sandel, 함규진 역, 2020: 249-251).

이렇듯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진 시험은 능력주의의 도구로 사용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시험의 의도는 불평등이 아니다. 하지만 혈통이 아닌 학습능력을 통해 불평등은 정당화된다. 그래서 사회의 모습과 동일하게, 능력주의는 계층 간 이동성의 가능성‘만’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선별된 수재들에게는 칭송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실패감과 모멸감을 얻는다(Sandel, 함규진 역, 2020: 255).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시험이 교육 자체를 무시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험제도와 내용을 보면 ‘학습’이 필요한 것이지 이를 포함하는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다.

2. 개인주의와 성과주의

시험은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다. 능력주의가 개인의 능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층 이동의 열망은 학생들을 시험에 집중하게 한다. 앞서 사회에서 나타나는 능력주의로 인한 개인주의와 성과주의의 모습은 교육 안에서도 그 모습을 여실히 보인다.

시험은 학생들을 경쟁의 장에 내놓는다. 경쟁 속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없다. 나는 철저한 개인이며 타자는 경쟁의 대상일 뿐이다. 개인은 타자를 도와줄 수 없고, 자신 또한 타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건 능력주의가 추구하는 경쟁이 아니다. 철저하게 독립된 자아실현만이 개인이 추구할 가치가 있다. 이는 사회의 모습에서 언급했던 ‘나르시시즘(narcissism)’의 모습이다. 철저한 개인주의적 가치는 학생을 둘러싼 타자는 물론, 종교, 정치, 역사적인 맥락의 의미를 지워버린다. 자신을 뛰어넘는 그 어떤 의미도 의식하지 못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테일러(Taylo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시야를 상실해 버렸다. 토크빌에 따르면 민주적 평등을 통해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기 마음의 고독 속에 가두어 두도록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의 어두운 면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의 초점 이동에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높낮이 없이]덤덤하게 되고 협소해진다. 우리의 삶은 갈수록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우리는 타인의 삶이나 사회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진다(Taylor, 송영배 역, 2013: 13).

이것이 테일러가 말한 현대사회의 불안 요인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삶의 의미 상실”이다(Taylor, 송영배 역, 2013: 21). 개인의 능력 개발에 집중된 능력주의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의미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데 방해하는 것을 넘어,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 외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유일한 의미인 시험에서 성적이 낮게 나온다면 학생들의 삶에 남는 의미가 없어진다. 2020년 기준, 지난 8년 동안 한국의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는 자살이다(<https://news.joins.com/article/23763872>, 검색일 2021년 3월 3일). 죽음의 유일한 원인을 시험에 의한 성적비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삶의 의미 상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성과주의는 학생들의 이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을 생산성에 쏟아 붓는 것과 같이, 교육에서는 학습에 학생의 시간을 쏟아 붓는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조사한 평일 여가시간은 3시간 이하가 65.4%에 이르고, 10명 중 4명은 하루 평균 2시간 미만의 여가시간을 갖는다. 남학생들의 경우 79.4%가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으로 여가시간을 보낸다. 고등학생 10명 중 5명(45.9%)은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이며, 초등부터 고등까지 4명 중 3명(74.8%)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학생들은 쉴 시간이 없다. 계속해서 학습을 할 뿐이다. 한병철은 이러한 상태를 활동

6) “2020 청소년 통계”는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s://www.narasallim.net/2298> (검색일 2021년 3월 3일).

과잉이라 칭한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힘이 없다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면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성찰하는 “돌이켜 생각하기는 불가능”하다 (Byung-Chul, 김태환 역, 2014: 53). 학생들에게는 삶의 여백이 없다.

3. 인지적 학습 중심

능력주의는 ‘지능+노력=능력’이라는 도식으로 표현된다. 이 도식이 포함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 데, ‘평가의 목적’과 ‘사라져버린 몸’이다. 먼저 평가의 목적을 보도록 하자.

능력주의에서 시험은 지능 측정(수학 능력)이 그 첫 번째 목표다. 측정을 하는 이유는 선별(select)에 있다. 사실 이 부분은 평가의 오래된 관습 중 하나다. 선별을 위한 평가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어떤 개념을 잘 알게 하는 데 있지 않다.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등급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 사이의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시험은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평가는 학생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거스키(Thomas R. Guskey)는 ‘등급매기기(grading)’를 위한 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엔 시험(assessments)이 한 몫을 합니다. ACT나 SAT와 같은 대학입학시험은 선택이 목적입니다. 이것들은 교육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특정개념을 잘 가르친 결과로 대부분의 학생이 그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맞춘다면 이 문제는 버려집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더 이상 학생들을 서열화(discriminates)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Guskey, 2011, 17).

이와 같이 선별을 위한 시험의 대부분은 학생의 지적(知的) 능력만을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의 육체적 능력은 도외시한다. 그래서 소외 예체능 전공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을 문제풀이에 집중하며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지적 능력만을 훈련한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교육에서 몸은 어디에 있는가.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통전적, 전인적 교육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내용과 방법이 실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험의 내용에 전인적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교사와 학생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무게가 무거운 이유는 교육이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상관없이 교육의 구성원들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사랑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학교나 교사가 아무리 전인적 교육을 한다고 말을 한들, 교육의 내용이 몸을 포함하지 않고, 나아가 평가에서 몸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제외된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적 가치는 주요교과라는 말과 끊임없는 시험으로 가치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반면, 육체적 가치는 영 교육과정(null-curriculum)이 되어 가치의 중요성에서 멀어진다.

이와 같이 ‘사라진 몸’은 사회적 현상에서 살펴봤던 ‘어셈블리 라인’과 그 구조가 비슷하다. 어셈블리 라인이 노동자의 인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을 분리했던 것처럼, 교육 또한 그렇다. 교육이 이와 같은 구조를 유지하는 이상, 학생들은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한 육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배울 기회가 없다. 교육은 잠재적으로 육체노동을 터부시하고 있다.

4.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어려움

더 심각한 문제는 능력주의가 제시한 이상, 계층 간 이동도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학력과 소득에 따른 지역 분리, 학교 분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상위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의 입학생 분포를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 중 상위 30개교 중 특목고가 15개교(528명), 자사고가 10개교(373명), 일반고가 6개교(124명)다. 상위 30개교 중 특목고와 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80.6%다. 지역 분리 또한 일어난다. 위에 나타난 일반고 6개교 중 서울 강남(3개교: 63명)과 목동(1개교: 17명) 소재가 4개교다. 일반고 합격생 중 강남만 보더라도 50% 이상이 된다(EBS 다큐프라임, “대학입시의 진실: 5부 교육 불평등 연대기”, 2017). 이는 최근 2020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을 봐도 대동소이하다.⁷⁾

미국도 마찬가지다. 경제력에 따라 이웃을 분리하는 현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제력에 따른 이웃 분리는 지역 분리로 이어진다. 이는 응당 “계급에 근거한 학교의 차별”로 전이된다(Putnam, 정태석 역, 2016: 61-63).

이러한 사실은 수치로 접하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체감한다. 다만 능력주의의 합리화로 그 불평등의 무게를 개인이 오롯이 감당할 따름이다. 하지만 앞 장에서 다룬 것 같이 소득에 따른 분리는 지역, 학교의 분리로 전이되는 것을 볼 때, 능력주의의 이상,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신념은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개인의 몫이 아닌, 학생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소위 ‘출발선이 다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같다.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 또한 소유하게 된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자원을 맞본다.

요즘처럼 인터넷망이 발달한 환경,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에서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접하게 되는 정보까지도 다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자녀보다 더 많은 기술,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찾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알고 있다(Putnam, 정태석 역, 2016: 306)

심한 경우, 서두에 언급했던 미국의 입시부정 기사와 같이 특권층 부모들은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불법을 자행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유명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서울 강남의 유명강사에게 돈을 주고 입학시킨 부모들도 있다. 이들은 서류조사에 의해 조작이 발견되어 입학이 취소되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9856_32524.html. 검색일 2020년 12월 8일). 더 나아가 미국과의 시차를 통해 SAT문제를 유출한 강사 또한 적발되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07304_32524.html. 검색일 2021년. 3월 3일).

7) 서울대 합격자를 20명 이상 배출한 학교는 총 22개교다. 이 중 일반고는 3개교다. 관련 기사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23&aid=0003525505>. (검색일 2021. 3. 3).

지금까지 교육에 나타나는 문제들, 능력주의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시험, 이에 따르는 개인주의와 성과주의의 폐해, 인지적 교육 중심으로 제외된 몸,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실제적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는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기독교교육적 대안

이 장에서는 능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살펴보겠다. 그 내용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진학’, ‘개인주의’, ‘노동’을 다루고, 기독교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를 중심으로 ‘몸’과 ‘여백’을 다루도록 하겠다.

1. 진로 -보냄을 위한 교육

기독교교육은 앞서 살펴본 능력주의를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과 그 욕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심 또한 기독교교육이 가장 힘써야 할 과제다. 교육은 정보의 전달을 포함한, 마땅히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교육, 특별히 기독교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진로를 중심에 뒀야 한다. 학생들의 진로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進路)’을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보낼 준비’를 한다는 뜻이다.⁸⁾

능력주의에 물든 교육은 그동안 학생들의 ‘진로’가 아닌 ‘진학’을 그 중심에 두었다. 나아가 학생들의 진학이 학교교육의 종착지처럼 생각했다. 명문이라 불리는 대학에 학생을 진학‘시켰다’면 그것이 학교 역할의 끝이자 열매였다. 이런 학교의 태도는 학생들이 졸업 후 맞이하게 되는 사회의 능력주의 구조 속에 그대로 편입된 모습일 뿐이며, 더 나아가 능력주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학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진로’를 그 중심에 뒀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정의해야 할 단어가 있다. 연구자는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인데, 여기서 ‘일’을 ‘직업’과 동일하게 보진 않는다. 일은 직업을 포함한다 더 넓은, 인간이 깨어있는 동안 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교육에서 진로라는 말 자체가 직업을 고른다는 말과 다르지 않게 사용된 것을 생각할 때, 교육 또한 일에 대한 협소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⁹⁾ ‘일’에 대한 논의는 ‘(2) 일을 위한

8)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내 ‘미셔널 처치운동(Missional Church Movement)’이 기독교교육에 주는 통찰이 있다. 이 운동에 의하면,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교회로 세상에 ‘보냄’받는 공동체다. 불가시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바라며, 지역교회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김재영, 2010: 336-337). 보냄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신 지역이 어디인지, 자신들이 위치한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문화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이다. 순수한 복음을 들어 복음은 “문화의 옷”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Newbigin, 홍병룡 역, 2013: 272). 교회가 보냄을 위해 존재하듯이 학교 또한 보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교육'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학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각자 다르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각자 다르다는 사실은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가져야 할 생각, 해야 할 '일'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학생들은 개개인에 맞는 학습과 활동을 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래서 학생의 다양성을 염두한 교육은 단순히 진보적 교육사관에서 비롯된 방법이 아니라 학생의 보냄을 위한 교육, 진로교육의 일환이다. 흥미로운 것은 능력주의에 의해 강조되는 개개인의 능력이 학생들의 다양성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능력주의가 추구하는 바, 성공의 통로로서의 대학 입시가 학생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볼 때, 능력주의는 그 자체가 가진 구조 때문에 각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

진로교육의 수많은 방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능력주의의 가치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을 위한 기독교교육적 전제를 두고 기독교적 진로교육이 갖춰야 할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공동체 - 타자를 위한 교육

앞서 기독교교육은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그들의 진로를 염두하여 그들이 하게 될 일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것은 '타자'다. 기독교적 진로교육은 능력주의로 비롯된 나르시시즘에 의한 자기 폐쇄가 아닌, 이웃,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공동체, 사회를 위한 가치를 그 중심에 뒀야 한다. 개인 중심적 태도는 사회의 정치적 시민 의식 또한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Taylor, 송영배 역, 2013: 61). 물론 이것은 주께서 주신 십계명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웃사랑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비엘레(André Biéler)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새로운 인간성 개념을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삶 같은 그런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은 속임수이며 사기성 종교의 망상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만나고 연합함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이 몸의 머리다. 믿음으로 거듭난 각 신자들은 이 몸에 연결된다. 그는 이 몸과 떨어질 수 없는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은 교회의 가시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밖에서는 불가능하다(Biéler, 박성원 역, 2003: 36).

비엘레에 따르면, 교회는 교회의 지체됨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세상 전체와 "하나"로 존재한다. 이는 비가시적 교회의 보편적, 우주적 속성을 근거로 한다(Biéler, 박성원 역, 2003: 37). 이처럼 기독교적 진로교육의 핵심은 남을 위한, 타자를 위한 교육이다. 또한 순수한, 일반적인 학교교육 자체가 그것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본질은 결코 개인적인 배움에 목표를 두지 않으며 그래서 안된다. 만약 개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한다면 물리적으로만 보더라도 한곳에 모일 필요가 없다. 교실은 개인의

9) '진로(進路)'를 그 단어의 뜻 그대로 '앞으로 나아갈 길' 즉, '삶'으로 봐야 한다.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은 삶과 보냄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life)의 큰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

정체성을 키우되, “개인과 타인을 연결하며 집단의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Postman, 2011: 67).

또한 더 나아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기독교교육은 학생들에게 개인에게 맡겨진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기독교교육은 개인의 능력이 자라나는 것과 그 결과가 순수하게 개인의 노력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허락된 자원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학생 개인을 위한 계획을 통한 은혜이며, 이는 학생 개인이 가져야 할 일종의 ‘책임’이다. 이것은 학생 개개인이 받은 바, 그것이 부모의 능력이든, 환경이든, 학생 개인의 성향이든 간에 자신의 의지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식이다. 개인이 누리는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에 기인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거꾸로 보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왜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있도록 하셨는가를 고민하게 한다면, 응당 누군가는 돕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의 편중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부의 편중현상은 재화(財貨)의 재분배로 해결해야 한다. 재분배는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 이루어진다.”(Biéler, 박성원 역, 2003: 56).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부자라면 그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특권과 더불어 도와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토대로 이웃과 다른 피조물로부터의 분리도 불러왔다. 이는 능력주의에 의한 개인주의 또한 타락의 결과이며, 이는 기독교교육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진로를 중심에 둔, 보냄을 위한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공동체, 타자가 위치해야 한다.

(2) 일을 위한 교육

앞서 ‘일’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언급했다. 거기서 연구자는 ‘일’을 직업 즉, 유급노동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일’을 ‘유급노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일에 대한 협소한 정의일 뿐만 아니라 왜곡된 정의다. 일을 올바른 의미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소극적인 이유로, 현 사회의 노동실태를 비판하는 위치를 갖는다. 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민하고자 하는 의도다.

대한민국에는 ‘사계’라는 익숙한 노래가 있다.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라는 후렴구로 익숙한 이 노래는 재봉틀을 돌리는 여공들의 이야기다. 사계 즉, 1년 내내 계절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반복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애환을 그렸다. 계절의 변화를 경쾌하게 노래하지만 후렴의 내용이 말해주는 착잡함이 공존하는 민중가요다. 이 노래를 통해 우리는 일의 의미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성과 상관없이, 일은 삶의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경제의 생산성 극대화를 부추긴 능력주의는 노동에 있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과 결과물의 분리를 가져왔다. 어셈블리 라인과 같이 노동자는

결과물과 상관없다. 단순한 작업은, 예를 들어 볼트만 조인다든지, 재봉틀만 돌리는 데 있어서는 노동자의 인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렌트(Hannah Arendt)는 이렇게 전체과정을 통제하는 사람과 단순한 노동만을 하는 사람의 분리를 *아니말 라보란스*(Animal laborans)와 *호모 파베르*(Homo faber)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아니말 라보란스*는 “일하는 동물” 즉, 짐승처럼 어떤 일을 되풀이하는 인간이다. 반면 *호모 파베르*는 *아니말 라보란스*의 위에 위치하며 “물질적 노동과 행위를 판단”하는 인간이다(Sennett, 김홍식 역, 2016: 21-22). 하지만 이런 분리는 ‘일’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넘어 그 가치를 왜곡하여 폄하시킨다. 노동을 기준으로 한 이러한 구분은 ‘일’자체의 가치를 가리고 인간의 노동 자체를 시장에 내놓는 시장경제의 노동시장을 합리화할 뿐이다. 시장에 의한 노동 가치 부여는 많은 돈을 받는 일은 좋은 일이며, 적은 돈을 받는 일은 좋지 못한 일이라는 도식 또한 도출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 보상만으로 본다면 육아노동은 일이 아니다. 쉴레(Dorothee Sölle)는 이를 이데올로기로 표현한다.

노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창조가 아니라 돈을 생각한다. 노동이 삶을 유지하고 풍부하게 하고 충만케 한다는 점에서 노동 그 자체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보는 대신 노동을 급료와 관련지으며 경제적 소득에 따라 평가한다. 이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만큼 노동의 의미는 공허해진다. 우리는 노동시장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품으로 노동을 축소시킨다(Sölle, 박경미역, 2019: 109).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주인과 그가 고용한 일꾼들에 대해 이야기하신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은과 같으니”라고 비유하시며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보여준다(마 20:1).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의 가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포도원 주인이 각각 다른 시간에 고용한 일꾼들에게 샅을 지불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포도원에 찾아온 일꾼은 시간에 따라 오전 일찍(2절), 정오와 오후 중반(3절), 오후 늦게(6절)로 나뉜다. 특별히 오후 늦게 온 일꾼들은 자신들을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오후 늦게까지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일을 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요즘의 새벽 인력시장을 보더라도 동일하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하루 일을 마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는다. 그것도 마지막에 합류한 일꾼들부터 ‘먼저’ 샅을 지불한다(8절). 당연히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은 불평을 했다(12절). 사실 능력주의 문화 안에 있는 현대인들은 이들의 불평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능력주의 문화 안에서는 일한 만큼, 자신의 능력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능력은 보상의 크고 작음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모든 것을 뒤집는다. 이는 천국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와 결을 같이 한다(France, 2007: 748). 하나님 나라는 받는 보상으로 일의 가치, 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포도원 주인의 논리 또한 반박할 수 없다. 물론 이 비유가, 하나

님 나라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유가 노조와 경영자의 분쟁 해결을 위한 원리를 제공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Carson, 1984: 427-428). 우리에게 필요한 성찰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이 제시하는 원리를 받아들이다더라도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에게 공감하게 되는 것은 현대가 그만큼 능력주의 문화에 잠긴 것을 반증한다는 데 있다.¹⁰⁾

그렇다면 일에 대한 교육의 기독교적 대안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여기서 장인(匠人) 개념을 그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한다. 어떤 물건(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더라도)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공정을 알고, 참여한다면 그는 장인정신 아래 있다. 장인은 전인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육체의 인지적, 육체적 능력을 통합적으로 사용한다. 인간 존재는 아니말 라보란스와 호모 파베르처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일을 하는 인간은 ‘왜’(호모 파베르)와 ‘어떻게’(아니말 라보란스)를 함께 질문하며, 해야하는 통합적 존재다. 만약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타자에 의해 목적(왜)이 주어진다면 이는 노동자의 행위주체성을 약화하기 때문이다(Crawford, 2018: 282).

인간은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로마의 노예로 벽돌을 만들던 벽돌장인, 벽돌공들은 자신이 만든 벽돌에 라틴어로 ‘페키투’(fecit)라고 새겨 넣었다. 이 단어는 “이 일에 내가 있었노라”라는 뜻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었다(Sennett, 김홍식 역, 2016: 213-221). 장인적 일은 전인적, 존재론적인 인간을 표현하는 주된 방식이다. 일에 대한 장인적 관점은 일을 하는 사람의 육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인간의 몸을 생각하게 되면 몸을 매개로 하는 노동을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으로 나눌 수 없다. 기독교교육은 물론 일반 교육에서도 ‘전인적 교육’이라는 주제는 수없이 나왔었다. 하지만 능력주의가 불러일으킨 노동의 이분화는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관념론적 인간관¹¹⁾과 결합하여 실존적인 몸 자체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듯 기독교교육은 일과 노동을 하는 육체의 가치를 회복하여 진정한 전인적 교육을 해야 한다. 거대한 진로교육의 흐름 안에 일과 육체의 가치가 기독교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스며들 필요가 있다.

2. 교육과정

보통 학교에서 진로교육이라고 이뤄지는 수업이나 활동은 특별수업이나 강의, 특별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진로교육은 학교의 전체 교육과정과 독립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 진로교육에서 가치를 두고자 하는 요소들은 반드시 교육과정 안에서도 가치를 두어 교과나 활동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로교육을 통한 보냄을 준비할 수 있기

10) 첨언하자면, 연구자가 일을 유급노동과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 보상 자체를 거부하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은화로 통상적으로 노동자의 하루 급료였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 10:30-37)에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지불한 것으로 나오는 데, 예레미야스(J. Jeremias)는 당시 숙박비를 1/20데나리온 정도로 추정한다. 이와 비교했을 때도 앞서 포도원 일꾼들이 받은 데나리온은 부족하지 않은 정당한 금액이었다(가스펠서브, 2018: 1190). 일을 통한 존재의 표현은 노동자가 살아가는 현실, 실존적 문제를 응당 포함해야 한다.

11) 관념론적 인간론은 인간의 신체를 매우 하등한 것으로 본다. 몸은 질료이며 이는 영혼보다 하위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관념론적 인간론 안에서 “몸은 영혼에 있어서 걸림돌이며 사실 인간은 몸이 없는 것이 훨씬 낫다.”(Hoekema, 이용중 역, 2012: 13).

때문이다. 이 작은 장에서는 앞서 언급된 ‘몸’의 중요성을 살피고 이를 교육과정의 중요 가치로 제시할 것이다. 몸은 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지점이며, 앞서 언급한 인지 중심 교육에서 잊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능력주의에 의한 생산성의 최우선적 목표에 맞서 안식과 쉼을 드러내는 ‘여백’에 대해 살펴보고, 이 또한 중요 가치로 제시한다.

(1) 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교육철학의 인식론에 있어서 양대산맥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다. 합리주의는 형식 논리를 그 내적 지속성으로 갖는 데, 이는 주체가 외부인 현실세계와 단절될 위험성이 있다(Knight, 1993: 39). 경험주의 또한 자연과학적 객관주의에 그 토대를 두었지만 인간 지식의 비독립성, 가치지향성, 인격성 등에 의해 비판받았다(김병재, 2018: 15-33).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작업도 이와 같았다. 퐁티는 합리론과 경험론 모두를 비판하고 이를 종합하고자 했던 칸트의 철학까지도 비판한다. 역사 속에서 합리론과 경험론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퐁티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같았다. 양자 모두 “객관주의적 사유라 부르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즉, 이 두 사조는 우리의 사유를 객관화된 대상에게 고정시키기 때문에 객관화되기 전인 “근원적인 삶의 영역”을 놓치게 한다(이남인, 2020: 36-37). 이런 이유로 퐁티는 합리론과 경험론도 아닌, 몸에 관심을 둔다. 퐁티는 합리론과 경험론처럼 몸을 객관주의적 관점에서 대상화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신체는 끊임없이 지각되기 때문에.....중략.....나의 신체는 나를 떠나지 않는 대상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대상인가? 대상이 불변적 구조라면 그것은 조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망의 변화에서 또는 조망의 변화를 통하여 그런 것이다.....중략.....대상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나의 시각 장에서 사라질 수 있는 한에서 대상이다. 대상의 현존은 가능한 부재가 으레 따르기 마련인 그런 종류의 것이다. 그런데 고유한 신체의 영속성은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다(Ponty, 류의근 역, 2019: 154).

이렇게 신체는 인간 자체로서의 지각이다. 퐁티는 이를 “지각적 습관”으로 연결하여 인간의 지식이 암묵적인 형태를 띠는 것으로 말한다. 퐁티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예로 든다. 시각장애인은 지팡이를 통해 다른 사물을 인지하는 데, 이 때 시각장애인에게 손과 지팡이, 사물이 독립적이거나 어떤 논리적 순서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암묵적인 덩어리로 지각된다(Ponty, 류의근 역, 2019: 241). 이것이 습관이다.

퐁티는 여기서 몸추지 않고 신체의 운동성과 공간성 개념을 통해 몸이 세계 안에 있고¹²⁾ 다른 대상들과 체계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몸이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가 우리에게

12) “세계-에로-존재(être-au-monde)”는 퐁티 특유의 용어다. 이는 세계를 향한 인간의 실존적 초월 운동을 가리킨다.

나타난다(Ponty, 류의근 역, 2019: 311-316). 인간은 몸이 아니고서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 인간은 몸으로 환경, 주변 물질세계에 둘러 싸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다. 인간이 느끼는 바는 그 상황을 초월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으며 자신이 “그 상황 안에 있는 것”으로 감각되어 결정된다. 이는 인간의 몸이 접하는 인간 존재의 우선성 때문이다(Smith, 2016: 77-79). 몸은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자 나 자신이다. 이러한 폰티의 몸철학은 1) 몸의 인식 자체로 인간 존재를 드러내고, 2) 몸의 인식이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것, 그리고 3)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이에 대한 당위성과 적극성을 역설한다.

정리한 세 가지는 기독교교육의 교육과정에도 의미있는 통찰을 준다.

첫째, 폰티의 몸철학은 관념론적 인간론에 반하여 통합적이고 인격적인 인간론을 주창한다. 이를 가장 간단하게 본다면, 소극적인 입장에서 기독교교육이 인지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야 함을 뜻한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직접 감각과 활동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각과 활동이 일어나는 장(field)이 학생들의 실존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세계-에로-존재’로서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영역과 장소에서 직접적인 감각과 활동이 필요하다.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개인의 실존을 떠나 하늘에 떠다니는 무엇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자신의 영역에서 이뤄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몸의 습관이 중요하다. 몸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암묵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인식하는 사람의 환경, 그를 둘러싼 거대한 흐름(이야기)이 그의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기독교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교육 공동체는 기독교의 진정한 이야기가 학생들의 환경이 되는 데 힘을 써야 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교육을 펼쳐 나가야 한다. 스미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암묵적 교육은 교훈적이지 않고 운동미학적이다. 우주관은 사상과 신념, 교리의 보급을 통해서가 아니라 몸에서 작동하며 다라서 의식을 우회하는 더 완곡한 방식으로 주입된다. 아이는 똑바로 앉는 법이나 칼을 잡는 법을 배울 때-비록 그를 ‘가르치는 이들’은 자신들이 이것을 전수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사회적 상상계, 사회적 질서에 대한 이미지,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한다(Smith, 2016: 174-175).

이런 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육화된 교육, 학생들의 습관이 되었을 때, 이는 앞서 언급한 장인(匠人)과 같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지식 자체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셋째, 폰티의 몸철학은 인간이 소통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힌다. 이는 앞서 ‘공동체-타자를 위한 교육’에서 말한 바와 같기에 간단한 언급만 덧붙이겠다. 폰티의 철학이 중요

인간이 세계-에로-존재라는 것은 세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참여하고 위탁하는 의미를 내포한다(Ponty, 류의근 역, 2019: 691).

한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와 타자를 위해 교육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해야만 인간 존재가 존재로서 드러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풍티의 몸철학을 통해 기독교교육이 얻은 통찰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가. 연구자는 그 도구의 하나로서 PBL(Problem Based Learning)을 간략히 제시한다. PBL의 특징을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자체가 단일이며 수업이다. 2) 프로젝트는 개방적이며 학생들의 의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 3) 모둠협력이 중요하며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4) 삶과 실생활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Larmer, 2017: 154-156).

PBL은 기본적으로 모둠 과제다. 이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소통해야 함을 뜻한다. PBL은 학생간 소통과 더불어 교사와의 소통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기획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삶과 실생활에 연관성이 있다. 좁게 보면 소속 학교나 지역의 문제(교내 쓰레기, 시설 이용 등)를, 넓게 보면 세계적인 문제(멸종 동물, 국가 이동 문제 등)를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분야의 사회적 문제를 정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Larmer, 2017: 164-165). 이러한 PBL의 특징은 풍티의 몸철학이 지니는 기독교교육적 통찰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학교나 교사가 구체적인 수업을 구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2) 여백에 대하여

김덕영은 한국의 성적 위주 스포츠 문화가 쉽없이 훈련하는 선수들을 만드는 것처럼, “한국의 교육은 전 사회적 차원에서 입시만을 위해 쉽 없이 뛰는 조그만 선수들”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김덕영, 2007: 34-35). 능력주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입시를 그 종착점으로 만들어냈다. 수학능력시험의 문제 질(質)이 좋다는 평가와 상관없이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의 문제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것도 끊임없는 훈련 말이다. 반복을 통해서 한눈에 문제 유형을 구별해야만 주어진 시간에 정해진 답을 도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앞서 살펴본 청소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쉴 틈이 없다. 이는 앞서 한병철이 진단한 현대사회의 피로사회, 활동과잉과 동일한 모습이 교육 안에 보이는 것이다. 학생들은 쉬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삶 속에는 물리적이며 정신적인 여백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인간은 통합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 여백에 근거하지 않은 정신적 여백이 있을 수 없으며 그 역(逆)도 마찬가지다.

유재봉은 ‘여가를 위한 교육’을 논하며 희랍의 스킨레(schole)개념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쉽’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총체적 세계를 수용하는 활동인 관조(contemplation)”다. 고대 그리스와 중세 사람들에게 ‘쉽’은 인간다운 삶의 핵심이었다(유재봉, 2019: 151-154). 스킨레의 원형은 성경의 ‘안식’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안식 또한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개념이 아닌, “천지를 (재)창조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가 (재)창조한 총체적 세계를 관조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은 새롭게 힘을 얻는다(유재봉, 2019: 158). 고대 그리스의 스킨레와 그 원형으로의 안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 물리적 여백의 필수성을

제공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쁨이며 공급이다.

여기서 연구자는 더 나아가 좀 더 강한 주장을 하려 한다. 이는 학생들의 여백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십계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독교의 십계명 중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다. 이 계명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이정규, 2017: 47).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35는 다음과 같이 6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말한다.

여섯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세심한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의 생명이라도 불법하게 취하려는 모든 경향, 사상, 목적에 저항하고, 모든 걱정을 억제하며, 모든 상황, 유혹,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중략.....곤경에 빠진 자를 위로하고 구제하며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요리문답의 136문답은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6계명이 금지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6계명은 그 문자적 의미인 ‘살인’을 금지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인간의 생명권에 기반한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강력한 권고를 담고 있으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들을 요구한다.

교육이 전인적이라면 기독교교육은 학생들의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입시와 성적 중심으로 내달리고 있는 교육은 학생들의 시간은 물론, 그들의 건강 또한 위협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은 학생들의 배움이 물리적으로 끊임 없는 정보 공급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심의 여백으로 그 배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과정의 세밀한 구성과 더불어 기관의 원칙을 통한 강제 또한 포함된다. 환자를 낮게 하려면 강제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V. 결론

교육은 교육과정 전체, 명시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그 대상이 무엇이든 사랑하도록 가르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종교적이다. 교육의 참여자가 종교적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의 지배적인 흐름인 능력주의는 사회와 교육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시대에 발을 딛고 있는 기독교교육은 응당 그 시대를 지배하는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능력주의는 그 성격과 현상에 있어서 너무 견고하고 조직적이다. 여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기독교교육에게 커다란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이 연구의 부족한 점과 더불어 더 자세하고 깊은 연구를 통한 기

독교교육의 방향성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이 갖춰야 하는 방향성만을 제시했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그동안 이뤄진 진로교육의 흐름과 내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제시된 가치에 맞게 재구성한다면 좀 더 나은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몸을 중심으로 한 인간론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교육의 영역에서 이뤄진 대부분의 학습 이론들은 인지적 중심 연구였다. 물론 인지적 연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몸과 감각에 집중하여 이뤄진 연구는 유아와 저학년 중심이다. 하지만 인간 본연의 전인적 성격을 생각한다면 고학년과 중등교육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한글 문헌

- Biéler, André (1961). *L'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역(2003).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Byung-Chul, Han (2010). *Müdigkeitsgesellschaft*. 김태환 역(2014).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 Chomsky, Noam (2015). *What Kind of Creatures Are We?*. 구미화 역(2017).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서울: 와이즈베리
- Crawford, Matthew B. (2009). *Shopclass as Soulcraft: An Inquiry into the Value of Work*. 윤영호 역(2018). 『손으로, 생각하기』. 서울: 사이
- Hoekema, Anthony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이용중 역(2012).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부흥과개혁사
- Knight, George. R. (1980). *Philosophy and Education*. 박영철 역(2005). 『철학과 기독교교육』.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 Larner, John, Mergendoller, John, Boss, Suzie (Eds.). (2015). *Setting the Standard for Project Based Learning*. 최선영 외2 역(2017).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지식프레임
- Newbigin, Lesslie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2013).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
- Ponty, Maurice Merleau (1945). *Phenomenology of Perception*. 류익근 역(2019). 『지각의 현상학』. 서울: (주)문학과지성사
- Postman, Neil (1995). *The End of Education*. 차동춘 역(2011). 『교육의 종말』. 서울: 문예출판사
- Putman, Robert D. (2015).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정태식 역(2016). 『우리 아이들』. 서울: 페이퍼로드
- Sandel, Michael J. (2020). *The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2020). 『공정하다는 착각』. 서울: 와이즈베리
- Sennett, Richard (1997). *The Craftsman*. 김홍식 역(2016). 『장인』. 서울: 21세기 북스
- Smith, James K. A. (2009).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박세

- 혁 역(2016).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 서울: IVP
- Sölle, Dorothee (1999). *Lieben und arbeiten – Eine Theologie der Schöpfung*. 박경미 역(2019). 『사랑과 노동』 . 서울: 분도출판사
- Taylor, Charles (1991). *The Malaise of Modernity*. 송영배 역(2013). 『불안한 현대 사회』 . 서울: (주)이학사
- Young, Michael (1994). *The Rise of the Meritocracy*. 유강은 역(2020). 『능력주의』 . 서울: 이매진
- 김덕영 (2007). 『입시 공화국의 종말』 . 서울: 인물과사상사
- 김재영 (2010). 『하나님나라의 자유를 찾다』 . 서울: DMI
- 유재봉 (2019). "섬과 탁월성을 위한 교육의 재해석," 『신앙과 학문』 . 24(3). 139–161.
- 이경숙 (2018). 『시험국민의 탄생』 . 서울: 푸른역사
- 이남인 (2020). 『후설과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 서울: 푸른역사

영어 문헌

- Carson, D. A. (1984). Matthew. In F. E. Gaebelin (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Matthew, Mark, Luke*(Vol.8). Grand Rapids, MI: Zondervan.
- France, R. T. (2007).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 Eerdmans.
- Guskey, Thomas R. (2011). "Five Obstacles to Grading Reform." *Journal of Educational Leadership* 69(4). 16–21.

참고 사이트

- <https://docuprime.ebs.co.kr/docuprime/vodReplayView?siteCd=DP&prodId=348&courseId=&stepId=&lectId=10684183>. (검색일 2021. 3. 3.)
- <https://news.joins.com/article/23763872>. (검색일 2021. 3. 3.)
- <https://www.narasallim.net/2298>. (검색일 2021. 3. 3.)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9856_32524.html. (검색일 2021. 3. 3.)